

## 世界養鷄產業動向 (5)

세계가금학회 한국지부

### 터어키

인구 4,100만의 터어키는 4,000 만수의 산란계와 2,500만수의 브로일러 250만수의 칠면조를 사육하고 있으며 가금생산물 중에서 연간 닭고기와 칠면조고기가 72,000 TON, 계란이 27억개로서 국민 1인당 고기 1.8kg 계란 65개의 소비추세를 보이고 있다. 2~3년전만 하더라도 닭고기 값이 적육(赤肉)보다 더 비싸게 거래되었으나 양계산업이 발달되고 사양기술의 보급으로 양계생산물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서 쇠고기나 양고기 값과 비슷한 판매가격을 나타내고 있다.

양계농장은 주로 앙카라, 이즈머, 이스탄불 근교에 위치하고 대부분의 양계생산물이 수도 앙카라와 이즈머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즈머에 있는 가장 큰 브로일러 농장에서는 터어키 전체의 닭고기 생산량의 농인 12,000TON을 연간 생산하고 있고 산란계농장은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성행하고 있다.

이나라에서는 양계생산물의 수입이나 양계사료의 원료도 수입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수출도 하지 않는 자급자족의 양계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최근에는 시골 지역에서도 닭고기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어 계란이나 닭고기의 공급은 달리는 형편이지만 양계사료의 생산부족으로 인한 사료가격의 앙등은 생산가격을 비싸게 하는 원인이 되어 양계산업 발전에 큰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현재 시판되는 산란계 사료의 가격은 kg 당 17센트(85원) 계란가격은 개당 6~7센트(30~35원)이고 브로일러 사료는 kg 당 22~24센트(110~120원) 도제처리된 브로일러는 kg 당 1.54~1.65\$ (770~825원)로서 우리나라에 비해서 사료가격은 싸고 생산물 가격은 비싸지만 노동비와 투자자본이 많은 이나라의 양계경영에서는 만족스러운 가격구조가 될수 없는 것 같다. 연간 70만TON의 사료생산 중에서 60%가 양계사료로 쓰이고 있으며 양계사료의 생산부족으로

대부분의 소규모 시골농장에서는 곡류를 포함시킨 자급사료를 만들어 대치하고 있어서 닭들의 생산능력이 떨어져 국내수요를 충당시키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또 양계산업의 발전에 저해요소는 우수한 외국계의 수입제한으로 인한 노계의 대체가 잘 이뤄지지 않고 전문적인 부화기술자나 닭질병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되어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될 수가 있다.

1951년 미국과 기술지원조약을 처음으로 맺은후 양계전문가가 터어기에 도착하였고 능력이 우수한 레그혼, 로드아일랜드 레드폼종이 정부의 시범농장에서 사육되기 시작하였다. 이전에 이나라의 양계산법은 사료도 완전 농가부산물로 자급하였고 방역대책도 없어 연간 산란능력이 70~75개의 계란을 생산하는 산란계를 사육하고 있었으며 사육규모는 50수 정도의 사육농가가 대부분이었다. 모든 부화는 모 계부화였고 가장 성능이 좋은 부화기의 입란규모가 300개 정도였었다고 한다. 1954년 농림부에 양계담당부서가 생기고 국립양계전문위원회가 발족되어 미국으로부터 35,000수의 종계를 기증 받았고 정부의 조직적인 기술교육으로 오늘의 양계산업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현재는 국립 시범농장에서 레그혼, 뉴햄프셔, 화이트록의 실용계를 분양하고 있고 전문위원회에서는 국립시범양계농장의 시설을 현대화하고 민간 대규모농장에서 성능이 우수한 부화기, 자동화계사, 사료생산의 합리화등에 중점을 두어 좀더 안정된 양계산업의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며 질병대책은 농림부의 수의담당부서에서 대규모의 세미나, 대학에서 단기교육, 또 라디오를 통한 양계교육을 실시하면서 양계산업발전에 많은 기관에서 협조로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 밖에 정부의 양계전문가들이 미국등의 외국 선진 양계 교육을 배울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고 양계시찰단이 매년 2개월간 미국에서 선진지 견학으로 더욱 견고한 양계산업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항가리

매년 실시되어 온 항가리의 산란계 경제능력검정 사업 중에서 1973~1975년에 카포스바 농과대학의 검정사업은 9종류의 산란계 품종을 케이지의 밀도에 따라서 품종별로 어떻게 영향되는 지를 시험하였던 것이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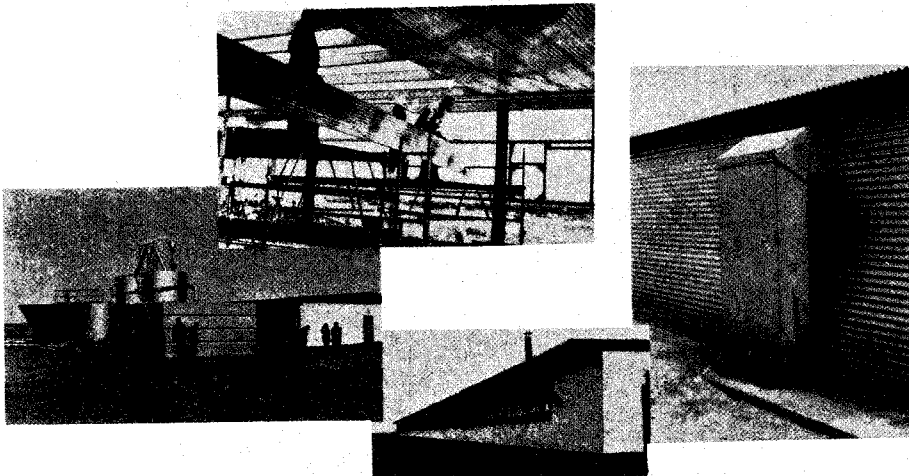


표 1. 성성숙일령과 350일령 체중

품 종	성성숙일령		350일령 체중	
	3 수/Cage	4 수/Cage	3 수/Cage	4 수/Cage
1	173 일	172 일	1.93kg	1.96kg
2	178	175	1.71	1.65
3	178	179	1.67	1.73
4	179	178	1.83	1.77
5	179	180	1.74	1.74
6	179	177	1.80	1.86
7	179	178	1.81	1.80
8	178	179	2.51	2.30
9	180	184	2.61	2.39

표 2. 사육밀도에 따른 일령별 산란능력

품 종	350일령		550일령		750일령	
	3 수/Cage	4 수/Cage	3 수/Cage	4 수/Cage	3 수/Cage	4 수/Cage
1	154	151	294	281	406	392
2	153	145	293	276	408	394
6	149	148	287	287	402	409
8	151	149	280	277	374	369
9	150	137	277	259	367	355

553cm<sup>2</sup>의 Cage에 3 마리를 수용했을 때와 400cm<sup>2</sup>의 Cage에 4 마리의 산란계를 수용했을 때에 성성숙일령과 350일령 체중을 표시하고 있는데 이 점정사업에서 출품된 계종의 번호인 1~7 번까지는 백색 레그혼계통이고 8, 9 번은 유색산란계였는데 초산일령에서는 품종간에 95%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지만 Cage의 수용수수에 따른 영향은 모든 품종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350일령 체중에서 백색산란계는 Cage 밀도에 따라서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유색계(8, 9 번)는 400cm<sup>2</sup>의 Cage에 4 마리를 수용하였던 것이 유의적으로 낮은 체중의 분포를 보였다. 표 2에서는 350일, 550일, 750일령까지의 산란능력을 케이지당 수용수수에 따라서 크게 영향하는 품종만 골라 표시한 것인데 모든 품종이 산란기간이

길어질수록 산란능력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1, 2, 9 품종은 553cm<sup>2</sup>의 케이지에 3 마리씩 수용했던 것이 400cm<sup>2</sup>의 케이지에 4 마리를 수용했을 때 보다 유의적으로 산란능력이 우수하였고 그 반면에 6, 8 품종은 4 마리를 수용했을 때 산란능력이 유의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보였다.

대부분의 품종이 사육밀도가 좁으므로 해서 개체간에 받는 스트레스가 크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되며 산란후기에 와서 산란능력의 강도는 사육밀도와 밀접한 관계를 보인다는 것을 알수가 있었다. 품종과 사육밀도의 상호작용이 단기간 능력검정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장기간의 산란능력 판정에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정될 수가 있는 것으로 어느 지역에서든지 실시하여서 산란계의 경영합리화를 피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